

학교폭력 3분의1이 '언어폭력'

학교폭력 피해 학생 10명중 3명이 언어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감소했지만 개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초 4~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을 조사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상 학생의 94.9%인 419만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0.9%(3만7000명)로 전년 동차와 마찬가지로 2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줄어드는 추세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2.1%(2만8400명), 중학교 0.5%(6300

'학폭' 피해 응답률 2012년 이후 5년째 감소 5명중 2명은 같은학교 같은반 친구가 가해자

명), 고등학교 0.3%(4500명)로 전년 동차와 동일했다.

학생 1000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6.3건), 집단따돌림(3.1건), 스토킹(2.3건), 신체폭행(2.2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비율도 언어폭력(34.1%)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6%), 스토킹(12.3%), 신체폭행(11.7%)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는 '교실 안'(28.9%), '복도'(14.1%), '운동장'(9.6%) 등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안'(67.1%)에서 발생했다.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32.8%), '점심 시간'(17.2%), '학교 이후'(15.7%), '수업 시간'(8.0%) 등의 순이었다.

피해학생이 응답한 가해자 유형은 '동학교 같은 반'(44.2%)이 가장 많았고 '동학교 동학년'(31.8%), '동학교 다른 학년'(9.4%), '타학교 학생'(4.1%) 등의 순이었다.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78.8%였다. 대상은 '가족'(45.4%), '학교'(16.4%), '친구나 선배'(11.0%)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8.0%), '더 괴롭힘을 당할까봐'(18.3%) 등이 꼽혔다.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78.9%이며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은 20.3%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인 피해 응답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는 2014년 1만3621건, 2015년 1만9968건, 2016년 2만3673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하도록 하고 학생·학부모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최근의 경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청별로 공표하고,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 9월에 실시되는 2차 결과와 함께 11월 말 공시될 예정이다.

뉴스스

영국 런던 유명 시장 화재 소방관 70명 출동

영국 런던 북부 관광명소 캠든마켓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70명이 진압에 나섰다.

런던 소방서는 1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전날 밤 화재 발생 직후 소방차 10대와 소방관 70명을 현장에 보냈으며 건물 1~3층과 지붕에 불이 붙었다고 전했다.

응급대원도 현장에 도착했으나 당국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마켓은 쇼핑거리에 유흥가가 있어서 관광객과 런던 시민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현지의 한목격자는 "불이 매우 빨리 번졌다"라며 "사람들은 지켜보면서 부엌이 있는 식당들이 있어서 건물이 폭발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마켓의 일부는 지난 2008년 발생한 화재로 소실됐고 일부 상점은 수개월 전부터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달 런던 북부에 있는 고층아파트 그랜펠타워에서 최소 80명이 숨지는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이후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인도 비하르주서 최소 23명 벼락 맞아 사망

인도 동부 비하르주에서 최소 23명이 벼락에 맞아 숨졌다고 인도 관리들이 10일 밝혔다.

시방지들은 주로 비하르주 주도 파트너와 바이살리, 시라에서 발생했다. 바이살리에서 7명이 숨져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라르나와 시라에서는 각각 4명이 벼락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8명의 사망자는 가와 사사람, 이라리아, 날란다 출신이다.

비하르주 기상 당국은 앞으로 48시간 동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비하르주에 계속될 것이라며 경계령을 내렸다.

인도에서는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2000명 이상이 벼락에 맞아 목숨을 잃고 있다.

오하이오주 가정집 파티에 男 2명 난입 총격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한 가정집에서 열린 파티에 8일 밤 남성이 침입, 총격을 가해 1명이 숨지고 어린이 등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콜레인 타운십 경찰의 마크 데니 서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여성은 22세이며 부상자는 임신한 여성 1명과 8세 6세 2세 어린이들로 생명의 지장이 없다고 발표했다. 사망자의 신원은 디에너주 헌팅턴의 요탑 개릿으로 밝혀졌다.

총격범 2명은 걸어서 도망쳤으며 경찰은 이들을 수배했고 총격사건의 상세 정보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임신한 여성은 다리에 총상을 입은 뒤 태아인 남이를 유산했다고 TV 뉴스에서 말했다. 이 날 파티는 이 여성의 태아의 성별을 공개하는 가족 파티였다.

범인들은 앞문을 통해 집안에 쳐들어왔으며 총격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다.

美서 꿈에게 머리물려 끌려가던 10대 탈출

미 콜로라도주의 한 아영장 슬리핑 백 속에서 잠자던 19세의 지도원이 9일 새벽 4시경(현지시간) 흑곰에게 머리를 물리는 '와작' 소리에 잠이 깨었지만 4m이상 끌려가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콜로라도 공원야생동물국 대변인이 말했다.

이 피해자는 덴버 북서쪽 77km 지점에 있는 글래시어 뷰 목장 부근 야영장에서 자던 중 무엇인가 씹히는 와작 소리를 듣고 잠이 깬 순간 자기 머리가 곰 입안에 물려있는 것을 알았으며, 그 소리는 곰이 이빨로 자기 머리 뼈를 깊이 물어 뼈를 스치는 순간에 난 소리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제니퍼 처칠 대변인은 전했다.

곰은 이 청년의 머리를 물고 슬리핑백 밖으로 끄집어 내려고 애썼으며 청년은 3~4m를 끌려가면서 곰을 치고 때리고 마구 소리를 질러 근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곰을 공격하는 동안 가까스로 탈출했다. 곰은 사람들의 고함소리에 마침내 그를 뱉어놓고 사라졌다.

딜러이란 이름의 청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곧 퇴원했다. 그의 천막 곁에는 12~13세의 아영 팀들이 자고 있는 텐트들이 있었지만 다른 청소년은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아영장 소유주인 제7안식일 로키마운틴회는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징계의결 보류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된 이후 '무단결근' 처리된 전교조직 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전남도교육청이 보류했다.

전남도교육청은 10일 전교조 전임자인 전남지부 정찬길 수석부지 부장과 최중재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의결을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 세종, 인천, 경기도교육청도 전교조 법적 지위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전임자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

전교조 전임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올해 3월부터 무단결근 처리되고 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3월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 대한 전임 의결을 허가했다가 교육부의 압력을 받고 1주일 만에 허가를 취소해 '오락가락 행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지나친 정치적 행보와 눈치보기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올바른 지방교육자치 시대를 갈망하며 당당하고 소신있는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는 전임자들이 휴직을 한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어 징계 대상자가 없다.

김정환 기자



비가이렇게 많이 와서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린 10일 오전 서울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비를 피하고 있다.

올 상반기 교통사고·사상자, 지난해보다 감소

올 상반기 발생한 교통사고건수와 이로 인한 사상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이 공개한 2017년 상반기 교통사고 통계(잠정) 분석에 따르면 올 1~6월 발생한 교통사고는 10만2956건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10만7660건보다 4704건(4.4%)이 줄어든 수치다.

교통사고 부상자의 경우 전년 16만2009명에서 올해 15만657명으로 1만352명(6.4%)이 감소했다.

사망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885명, 지난해 1959명보다 74명

(3.8%)이 줄었다.

지방경찰청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지난해 75명에서 올해 48명으로(36%),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으로 꼽혔다. 이어 ▲대구(74명→68명, -25.7%) ▲울산(32명→28명, -12.5%) ▲경기북부(110명→98명, -10.9%) 등이 뒤따랐다.

반대로 사망자수가 늘어난 지역은 광주(36명→64명, 77.8%), 제주(29명→40명, 37.9%), 부산(65명→71명, 9.2%), 강원(97명→100명, 3.1%), 전남(162명→165명, 1.9%) 등이다. 광주와 제주는 '보행중 사

망'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45명,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4명,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11명이 감소했으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24명, 자전거 사망자는 17명 늘었다고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단속과 안전보행 등의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활동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